



오래된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선벽원(경농관·박물관·자작마루)

리모델링

이충기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박물관 ©신경섭





자작마루 무대 전경 ©신경섭

집단 기억

건축은 도시를 구성하는 그 어떤 요소들보다 사람들의 기억과 함께 오래 유지된다. 건축은 말이나 글이 아닌 시·공간의 흔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도시의 과거는 보잘것없는 현재에 한층 영광스러운 배경을 마련해 준다”는 에릭 홉스봄(Eric Hobsbawm)의 말처럼 지난 시대의 건축을 통해 기억된 역사와 문화는 현재를 한층 더 돋보이게 해 주는 것임에 틀림이 없다.

기억이라는 단어는 이탈로 칼비노(Italo Calvino)의 도시에 대한 표현에서 한층 더 빛을 발한다. 칼비노는 〈보이지 않는 도시들〉에서 마르코 폴로의 입을 빌려 황제 쿠빌라이 칸에게 도시와 건축의 기억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도시는 자신의 과거를 말로 하지 않습니다. 도시의 과거는 마치 손에 그어진 손글들처럼 거리 모퉁이에, 창살에, 계단 난간에, 피뢰침 안에, 깃대에 쓰여 있으며 그 자체로 굵히고 잘리고 조각나고 소용돌이치는 모든 단편들에 담겨 있습니다.”

농학과 문학을 전공했지만, 도시의 기억에 대한 이탈로 칼비노의 표현은 어느 건축 전문가의 설명보다 정확하고 설득력이 있다. 그의 설명처럼 사람들의 도시에 대한 기억은 건물과 장소, 그리고 그것에 부수되는 시설·요소 등 대부분 건축에 대한 것이다.

이처럼 도시와 건축은 사람들에게 집단의 기억으로 작용하는 대표적 매개체라 할 수 있다. 그 자체로 사물 및 장소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건물이 지어지고 사용되며 허물어지는 물리적 변화는 개인의 감정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지리적 환경으로 작용함으로써 사람들에게 기억의 장소라 할 수 있는 심리적 지리(psycho-geography)를 형성하게 된다. 진정한 망각은 존재하지 않으며 무의식 속에 잠재해 있는 것처럼 도시와 건축의 과거나 역사에 대한 의식은 기록되지 않더라도 사람들의 기억으

로 대물림돼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서울시립대학교의 경농관·박물관·자작마루는 시립대인 모두에게 추억이며, 역사이며, 궁지로 기억되는 집단 기억의 시·공간이라 할 수 있으며, 이미 캠퍼스 문화 공간으로서의 심리적 지리를 형성하고 있다.

시간의 흔적

‘건물을 본다’라고 할 때 우리가 보는 것은 건물만은 아니다. 그 공간의 주변을 감싸고 있는 빛·바람·온도 등 비가시적이고 동적이며 변하는 요소들과 나무·사물·사람 등 가시적인 요소들이 함께 관여해 형성된 상황·상태, 혹은 분위기를 함께 보는 것이다. 심지어 ‘본다’라는 행위에는 그것을 만든 사람들의 기술뿐만 아니라



경농관 화장실 ©신경섭



경농관 제2전시실 벽면 ©신경섭



경농관 목재 트러스 ©신경섭



경농관 제2전시실 ©신경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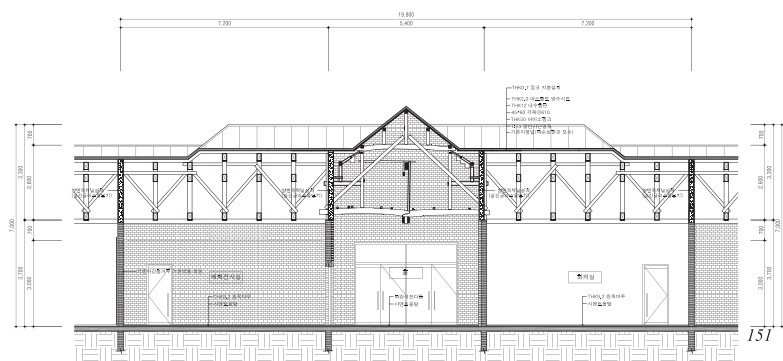
1938년 경농관(당시 교사) 전경



공사 전 경농관 복측 주출입구



경농관 북측 주출입구 ©신경섭







박물관 전시실 ©신경섭

정성과 땀도 들어 있으며, 기억과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시간의 흔적도 함께 관여하게 된다.

그것이 경농관·박물관·자작마루가 아름답게 보이고 감동을 주는 이유다. 이 건물들은 그 모든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는 박물관 그 자체라 할 수 있다. 이 건물들에서 80년이 다 돼 가는 시간의 흔적들을 짐작하게 하는 깊고 풍부한 표정들을 읽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은 일이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나는 접혀 있고 잠재해 있던 세 건물의 시간과 공간이 펼쳐지기를 희망했다. 그리고 그 시절의 공간적 숨결을 느끼고 싶었다. 벽돌을 나르고 쌓아서 이 건물을 짓던 사람들의 흔적을 만나고, 아직도 그 공간을 떠도는 못질과 망치의 소리를 듣고, 나무를 자르고 대패질해 지붕틀을 짜고 창문을 만들어 끼우던 그들의 숨결과 손짓을 드러내려 했다. 그래서 굽히고 조각나고 잘린 시간의 편린들까지 살려 내고 싶었던 것이다. 먼지 묻은 벽돌에서, 거미줄 친 목재에서 작은 얼룩이라도 발견되면 사람들이 흘린 땀의 흔적인 양, 아니면 힘든 노동에 잠시나마 위안이 됐을, 마시다 흘린 막걸리의 흔적인 것처럼 반가워했다. 그 벽돌이나 나무가 이 시대 우리에게 그들의 표정이나 몸짓으로 들려주고 싶은 얘기를 전하려 했다.



시·공간의 재생

현재의 경농관(현재 전시공간·연구소·수장고로 이용)·박물관·자작마루(현재 다목적 강당으로 이용)는 서울시립대학교의 전신인 경성공립농업학교 시기인 1937년 건립한 것으로 대부분의 건물은 소멸되고, 이들 세 동만 보존·유지되고 있다.

건립 당시 경농관은 대학본관, 박물관은 교실, 자작마루는 대강당으로 사용됐으며 우리나라 전체에서도 얼마 남아 있지 않은 일제강점기의 학교 건물로 근대 건축으로서 사료적 가치가 적지 않다. 세 건물 모두 벽체는 단열재 없이 적벽돌로 마감했다. 외부는 적벽돌이 그대로 노출됐고 내부는 중간에 보수하면서 마감을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대부분 시멘트 모르타르로 마감돼 있었으며, 지붕은 목조 트러스 위에 목재 널판을 얹고 아스팔트 싱글로(원래는 동판) 마감한 건물이다.

빛바랜 몇 장의 사진과 국가기록원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자작마루 도면 한 장으로 판단할 수 있던 것은 건물 외형이 건립 당시의 형태대로 비교적 잘 유지돼 왔다는 점이다. 그러나 내부는 벽체와 마감재료 등 대부분이 변형돼





박물관 남측 내부 ©신경섭

있었다. 특히 천장은 자체 무게뿐만 아니라 냉난방 및 조명 설비, 전시용 가설물 따위들을 지나치게 많이 설치해 목조 트러스의 구조안전이 위협받고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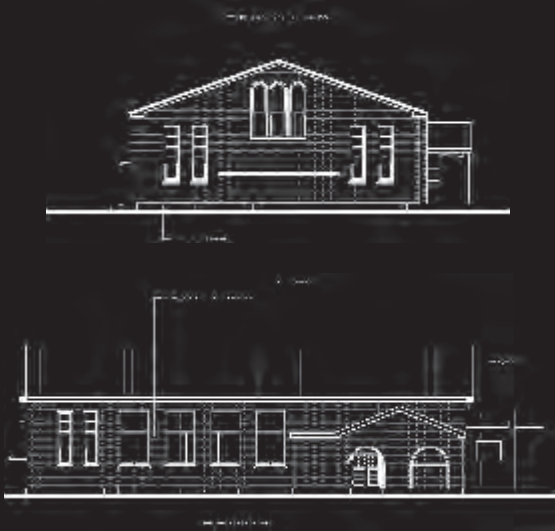
내가 이 프로젝트에 개입하게 된 것은 학교 본부로부터 정책 과제 요청이 있던 2012년 7월이었다. 그러나 이미 6월에 세 건물의 구조안전 및 소화·방재를 위한 성능 개선 공사에 따른 가격 입찰로 설계사를 선정, 설계를 완료한 상태였다. 또 같은 방법으로 시공사를 선정, 초기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당초 설계는 세 건물 모두 지붕은 철재 단열 패널로, 천장은 전시와 행사를 고려해 석고보드와 와이어매시 틀로, 벽체는 안쪽에 내단열을 하고 석고보드를 붙인 후 페인트 마감으로 계획돼 있었다.

그러나 내 제안으로 모든 공간 구조와 마감 재료 및 디자인을 변경해 복원에 가까운 정도의 보수·보강 공사를 하게 됐다. 주요 변경 내용은 천장 마감재 철거, 기존 목조 트러스 구조 보강, 소화용 스프링클러 신설, 냉난방 공사, 목조 트러스의 전기 스파크 감지기 신설, 외벽 단열 공사 및 고파벽돌 치장 쌓기, 내부 벽체 모르타르 제거 후 싯

어 내기, 지붕 외단열 및 티타늄 아연판 시공, 목재 창호 설치 및 이중 창호(외부 목재창-중간 단열 알루미늄 창), 목재 쪽널 및 무근 콘크리트 바닥 공사, 화장실 벽돌, 목재 마감, 자작마루 무대 · 조명 · 음향 및 종이층 발코니 설치 등이었다.

특히 기존 천장 마감을 제거하는 작업은 디자인 차원의 의도와 함께 이 공사의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트러스에 의존하고 있던 과도한 하중(마감 자체 하중과 냉난방 기기, 조명기구, 전시용 철제 구조물 등)을 줄여서 목조 트러스의 구조적 안정성과 화재 예방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진행한 소방 · 기계 · 전기 등의 설비용 배관 · 배선을 측벽과 천장으로 정리하는 작업은 현장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서 공정상 매우 어려움이 많았다. 일정상 도면을 변경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치 않아 현장에서 스케치로 작업 지시를 하고 사후에 도면을 작성하는 공정으로 진행하게 됐으나 결국 예정 보다 3개월 정도 지연돼 2013년 3월에 공사가 완료됐다.



1938년 자작마루(당시 대강당) ©서울시립대학교 박물관





자작마루 북측 야경 ©신경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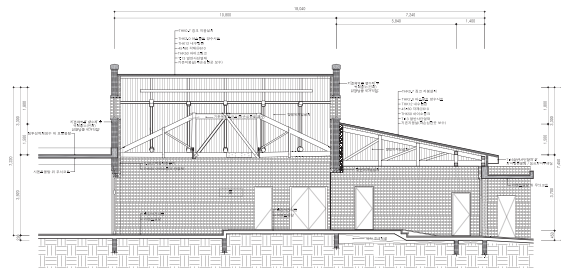


자작마루 남측 전경 ©신경섭





경농관 메인홀 ©신경섭



공간의 속살

이번 작업의 목표와 원칙은 벽돌과 목재로 대표되는 재료의 물성을 건립 시기에 가깝게 표현하는 것이었다. 이는 시간의 흔적과 아름다움을 보여 주기에 가장 유효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것이야말로 오래된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의 사연을 들어 주는 것이라 생각했다. 따라서 기존 천장재를 모두 철거하고 목재 트러스를 노출해 공간 볼륨을 높고 크게 확장함으로써 시·공간의 속살을 드러내는 것은 무엇보다 의미 있는 일이었다.

1937년부터 감춰진 목재트러스와 적벽돌의 속살이 드러나는 순간은 감동 그 자체였다. 좋은 음악이나 영화를 통해 느끼는 감동과 같은 것이었고, 오히려 그런 것을 넘어서는 그 무엇이었다.

그렇게 해서 공간 볼륨이 커지고 안정성이 확보된 경농관이나 자작마루는 어디에서든 전시·음악·연극·세미나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게 됐다. 비로소 캠퍼스 내 학생들이나 교수 모두에게 열려 있는 새로운 복합 문화 공간이 재탄생하게 된 것이다.





자작마루 목재 트러스 ©신경섭

새로운 문화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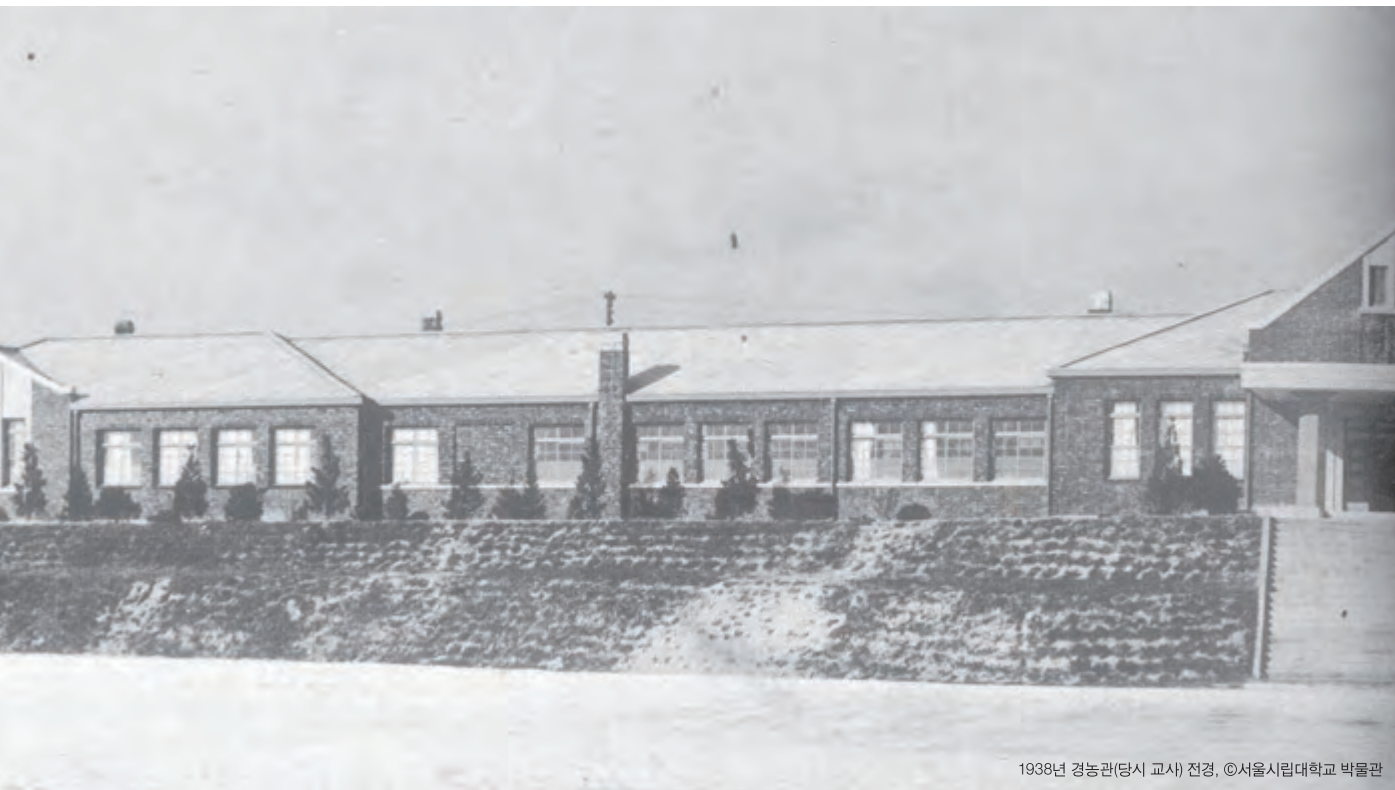
대학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과정 속에서 그 공간 주체들에 의해 끊임없이 생성·변형·소멸되는 ‘사회 공간(social space)’이다. 오늘날 대학 캠퍼스가 비판과 저항 공간, 파편화된 소비문화 공간에서 일상 공간으로, 그리고 다시 문화 공간으로 발전되고 있는 것은 그래서 더욱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따라서 공간에서 표출되는 문화와 공간으로 문화를 읽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

이제 이들 장소에서 공간과 몸, 공간과 귀, 공간과 눈이라는 공간 문화의 속성을 고려해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놀고 만드는 다양한 행위들이 일어나는 공간 문화가 형성돼야 한다. 그러면 그 행위들이

다시 시간의 흔적이 되고 공간의 속살이 돼 기억의 공간이 될 것이며, 역사와 전통의 심리적 지리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캠퍼스의 사적 공간이 공공 공간으로 확대되거나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의 문화 발전소 개념으로 확장될 수도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구성원들의 관심과 이해·애용이 필요하며, 그것이 이 공간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방법이 될 것이다.

서울시립대학교의 지난 100년이 시간적 의미에서 가치가 있었다면 이제 다가올 100년은 시간적 가치에서 탈출해 경농관·박물관·자작마루의 공간적 가치가 발휘되는 미래가 되기를 희망한다.





1938년 경농관(당시 교사) 전경, ©서울시립대학교 박물관



선벽원 전경 ©서울시립대학교 박물관